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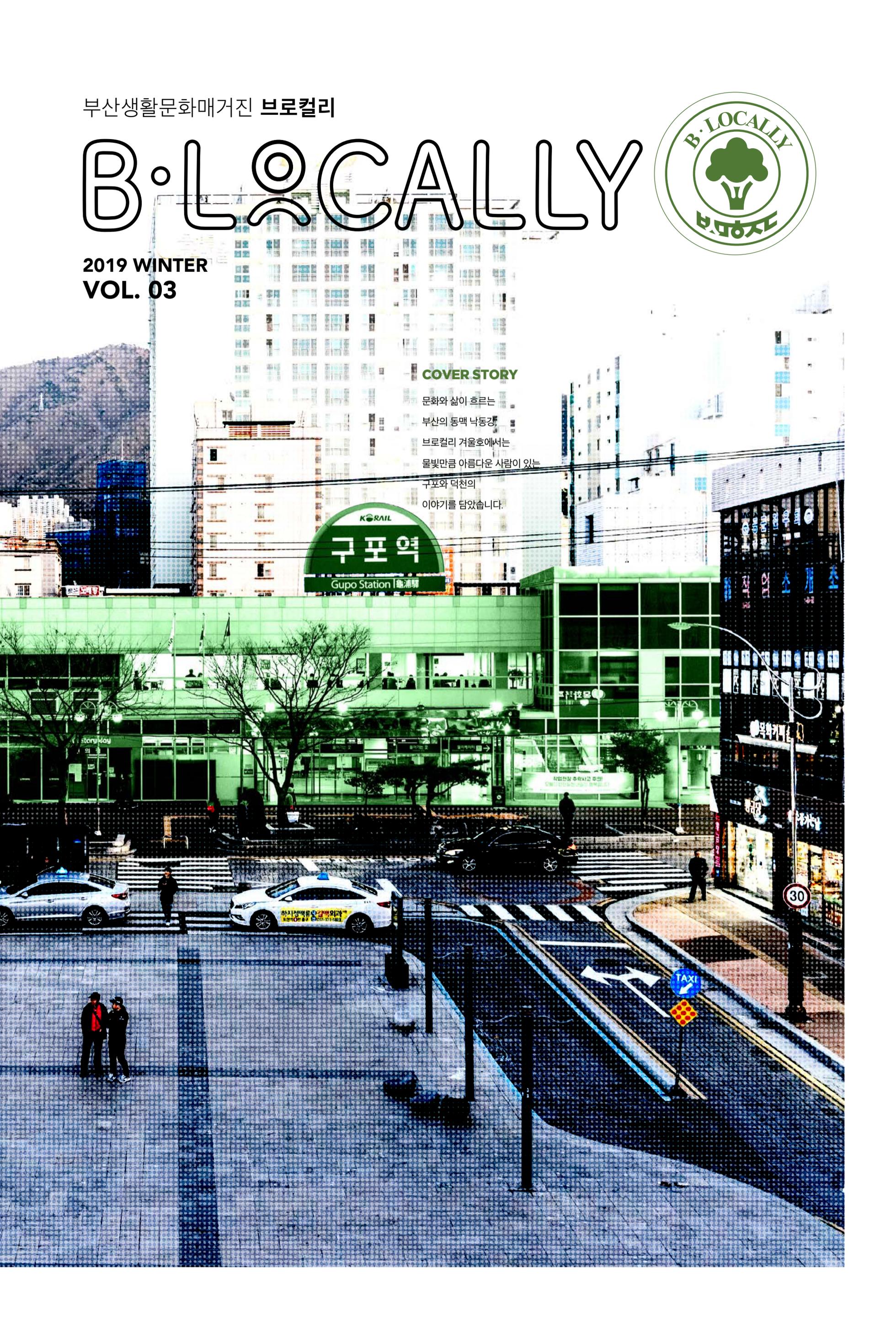
B·LOCALLY



2019 WINTER
VOL. 03

COVER STORY

문화와 삶이 흐르는
부산의 동맥 낙동강,
브로컬리 거울호에서는
물빛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구포와 덕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B·L·O·C·A·L·L·Y 2019 WINTER VOL. 03



브로컬리 투어 04-07
B로컬러가 제안하는 우리 지역 여행 코스, 브로컬리 투어. 구포나루에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까지,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3번 테이블 08-09
주인, 손님, 음식과 함께한 식당의 세월, 3번 테이블에서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작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에브리바다 10-13
바다를 빼놓곤 논할 수 없는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다



B스켓 16-17
매 호 가볍게 즐기는 비스켓 한 조각, 여러 장르 예술가들의 일상을 좇아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를 열어봅니다.



BUSAN NER 14-15
From Busan, To Busan. 안과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부산너의 단상. 부산, 너!



OO씨의 이중생활 18-19
퇴근 후 가면을 벗고 자유를 얻는 시간, 평범한 이웃의 이중생활을 만나봅니다.



날아라 동아리 20-21
일상에서 예술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문화 동아리를 응원합니다.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날아라 동아리!



보라카이 22-23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고치'. 너와 내가 '우리'되는 신비로운 공간! 일단 와 보라카이~



별지 B·L·O·C·A·L·L·Y TOUR
구포동과 덕천동의 주요 스팟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MAP, 동네의 지도를 모으고 이어 부산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브로컬리를 지켜봐주세요!

PM's LETTER

- #1 부산 로컬리(BUSAN LOCALLY)**
부산 하면 어떤 계절과 풍경이 생각나세요? 여름의 해운대 해변? 아니면 대저를 수놓은 봄의 유채꽃? 만약 여러분이 노을 지는 12월의 구포나루를 보게 된다면, 겨울의 부산이 함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신선한 로컬리티를 담기 위해 태어난 브로컬러가 여러분과 함께 맞게 된 첫 번째 겨울, 3호를 선보입니다.
- #2 창간호의 광안리 바다와 2호의 원도심에 이어,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북구까지 왔습니다. <브로컬리 투어>는 구포나루부터 덕천동 젊음의 거리까지, 북구의 B로컬러와 함께 걸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번 테이블>에서는 엄마와 딸의 아련한 추억이 공존하는 덕천동의 한 분식집을 찾아가봅니다.**
- #3 부산의 모든 바다, 그리고 모두의 바다. <에브리바다>에서는 마도로스 인생 50년, 부산항을 무대로 펼쳐지는 한 남자이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의 담백한 필치로 옮겨 보았습니다.**
- #4 너와 나,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산 사람입니다. 5만 5천 명이 넘는 외국인과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부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항상 부산을 그리워합니다. <BUSAN NER>에서는 중국에서 온 부산너, 그리고 뉴욕으로 간 부산너를 만납니다.**
- #5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BSCATEGORY)를 살피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대! <비스켓>에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주목받는 한 독립영화감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양복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열정을 꺼내 다 같이 복면탈화가 되는 시간. <OO씨의 이중생활>에서는 공간/브랜드 기획자 겸 공유주방 운영자로 활동하는 현석씨의 이중생활을 엿봅니다. '잡러의 톨모델'을 꿈꾸는 그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 #6 브로컬리는 일상의 아티스트를 찾습니다. 이번 <날아라 동아리>는 연극으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시민극단을 만나봤습니다. <날아라 동아리>의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 #7 '우리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이 곳,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궁금하면 <보라카이!>**
- #8 지역과 사람 그리고 문화까지, 브로컬리 겨울호는 다양한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호도 바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원료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NOTICE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20년 봄에 발간될 브로컬리 4호에서는 OO씨의 이중생활과 부산너 코너의 제보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직접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OO씨의 이중생활 제보하기
특별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 색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등 모든 장르의 피짜들을 제보해 주세요.



부산너 기고 안내문 보기
*The BUSANNER foreign language version guide is available on the website. (English, 中文, 日本語, Русский, español, العربية)
문의 051-257-8035

B 로컬러가 추천하는

구포, 덕천 동네 한 바퀴

글 신미영 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사진 하영문

구포는 범방산을 등에 지고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으로, 조선시대에 감동진(甘洞津) 또는 감동나루로 불리기도 했다. 구포는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 구포읍(龜浦邑)으로서 구포 덕천 만덕 화명 금곡 금성 등 6개 동리(洞里)를 거느렸다. 과거 '구포'라 하면 현재의 북구 전체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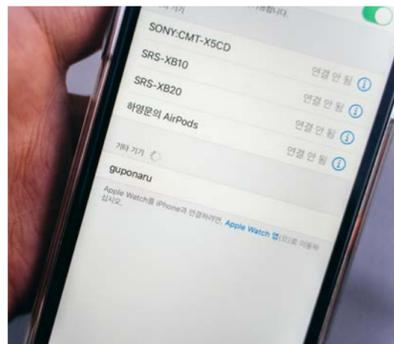
구포는 역사적으로 낙동강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구포에서 낙동강을 가장 잘 굽어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나는 도시철도 구포역사에 있는 전망대를 추천한다. 도시철도 구포역에 하차, KTX구포역으로 가는 출구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전망대란 표지가 보인다. 유리문을 밀면 외부공간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이 전망대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시원하게 뚫린 도로와 다리, 그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시름이 싹 날아가는 기분마저 든다. 2022년에는 전망대에서 화명 생태공원을 잇는 도보전용 다리가 놓일 예정이다. 일명 '이름 프롬나드'로, 280m에 이르는 이 다리는 도심에서 생태 숲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GUPO STATION



도시철도 구포역을 빠져 나오면 구포역광장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보인다. 이곳은 마치 하늘 정원을 연상시킨다. 특히 해가 질 무렵, 모습을 드러내는 형용할 수 없는 노을의 자태는 탄성이 절로 나올만큼 아름답다. 요즘 이곳은 연인들의 프로포즈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는데,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 지점에서 핸드폰 블루투스를 켜 <GUPONARU>로 연결하면 내 폰 속의 음악을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두바이, 칭다오, 홍콩 같은 관광도시의 야경을 책임지는 미디어파사드가 지난 10월 구포역 광장에 설치됐다. 미디어파사드의 영상물은 구포의 풍광과 역사, '밀·당프로젝트, 3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노포(老舖)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다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구포역이었지만, 지금은 밝고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난다. 새 엘리베이터 야간 조명은 마치 무드등을 연상케 하고, 토요일 오후마다 '문화정거장, 구포'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광장에서 KTX구포역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구포만세길이 이어져 있다. 1919년 3월29일 구포장이 서는 그날,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이 길에서 울려 퍼졌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장터의 장사꾼까지 가세한, 엄청난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당시 구포는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근대의 핫 플레이스로 인재와 상업자본이 집결했던 곳이다. 1907년 민립 구명학교(현 구포초등학교), 1912년 전국 최초의 민간지방인 구포은행 (현 우리은행 구포지점)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밀·당(堂) 프로젝트 : 과거 국수 공장과 제분공장이 밀집했던 구포 지역의 역사성을 '밀'이라는 콘텐츠로 만세 거리에 녹여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구포역 앞에는 52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노포(老舖), 동양반점이 있다. 원종화 대표의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주인공이자 주방장을 자처한다.

주방일이 힘들어 몇 번을 도망가기도 했지만, 언 손을 비비면서 익힌 요리 솜씨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그의 음식은 늘 정직하고 맛갈스럽다. 설탕과 조미료, 식용유로 범벅된 중국요리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이곳에서 진정한 중화요리의 정수를 맛보길 권하고 싶다.

동양반점을 지나 문화예술플랫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옛 사진첩에서 튀어나온 듯한 '명신약국'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세월의 무게가 커져가 내려앉은 약장과 진열대가 명신약국의 53년 전통을 대변하는 듯하다. 마음의 병까지도 한눈에 알아볼 것만 같은 김형정 약사님과 53년간 남편을 보조해 온 오연지 여사님은 구포역사의 산증인이다. 특히 오연지 여사님은 구포중학교를 설립해 경상남도에 기증하는 등 구포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오명규 선생의 조카딸이시기도 하다. 명신약국은 오전 8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해 비교적 늦은 밤 8시 30분에야 문을 닫는데, 이는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어야 만세길 상권이 죽지 않는다는 두 분의 소신 때문이다.



만세길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명신약국을 지나 구포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더 옮기면, 한 신축건물 1층에 48년 전통의 '동양마크사'가 보인다. 구포역 상권이 인파에 휩쓸려 다니던 호시절(구포지하철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곳도 엄청난 성업을 이루었다. 요즘은 플라스틱 이음표를 달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재봉틀로 새긴 이음표(재봉수)를 단 유니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곳 서영우 사장님은 재봉수의 달인. 그의 솜씨에 감탄하고도 고작 2000원을 내밀어야 하는 손이 부끄러울 정도다.

동양마크사를 지나 땀땀이 굴다리를 지나면 한 전통시장으로 이어진다. 덕천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 단돈 만 원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비한 장터, 바로 구포시장이다.

GUPO MARKET



DEOKKCHEON-DONG YOUTH STREET

구포시장이 워낙 엄청난 규모라, 초행자는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구포시장은 평소 상설로 운영되지만, 5월과 8일에서는 오일장 풍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시장이다. 장날에는 김해, 양산, 밀양, 창원뿐 아니라 멀리 경북, 전남 지역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장꾼들이 저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직접 뜯어 온 산나물이나 장아찌를 비롯해 갖은 공예품과 잡화를 늘어놓는다. 또 다양한 먹거리와 가성비 좋은 식재료가 지천에 널려 한 번 들어가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구포시장만의 정겨운 풍경을 뒤로한 채 길을 빠져나오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김해와 서부산 일대의 중심 변화기인 덕천동은 서부산 최대 상권답게 여러 상점이 즐비하다. 다양한

외식공간과 주점, 카페거리로 수놓인 이곳은 청춘의 젊음이 넘실대는 곳이다. 몇 년 사이 개성있는 맛집과 카페들이 인파로 문제로 프랜차이즈 매장에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조용한 골목 곳곳의 아담한 카페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늘 커피 향으로 가득하고, 저마다 다양한 색깔로 물든 이곳의 거리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구포 한 바퀴를 돌아 덕천동 젊음의 거리까지, 이번 브로컬리 투어의 모든 여정을 마쳤다. 나는 더 많은 이들이 구포와 덕천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이곳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가 숨 쉬는 거리, 뉴트로와 청춘의 열정이 뒤섞인 이곳을, 더 많은 이들과 누리고 싶다. 🍷

엄마와 딸의 기억이 만나는 곳

덕천동 맛나집

글 정엄지 사진 하영문

엄마는 나와 같은 닭띠이다.
나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는 나를 낳았다.
젊음의 거리라는 다소 혼란 명칭이 붙은 덕천역 일대는 밤이 되면 번쩍이는 간판들로 가득 차는, 그런 종류의 골목이다.
젊은이들의 취향이 빠르게 변하는 탓인지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힘든 시절이라 그런지,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들르면 폐업한 식당과 개업한 식당을 동시에 보게 되는 유흥가다.
떠나는 이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란 메시지조차 없이 쿨(?)하게 돌아서고, 빈 가게의 간판과 외벽은 금세 새로운 프랜차이즈 상호로 도배된다. 이것이 엄마가 오십 년 넘게 살아온 곳이자 나를 낳아 길러낸 덕천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풍경이다.



엄마가 기억하는 많은 것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단층집이 다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길을 배경으로 외할아버지와 단들이 찍은 사진이었다. 작은 나의 엄마. 사진의 색 바랜 이미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저기, 엄마가 어릴 때 살던 곳이야."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엄마가 말했다. 엄마의 손이 가리킨 곳은 도로 위였다. 차들이 뿡뿡 달리고, 신호가 바뀌면 멈춰 서고, 사람들은 길을 건넜다. 차도를 넘히기 위해 수십 채의 집이 헐렸던 게 몇 살 때 일었는지 엄마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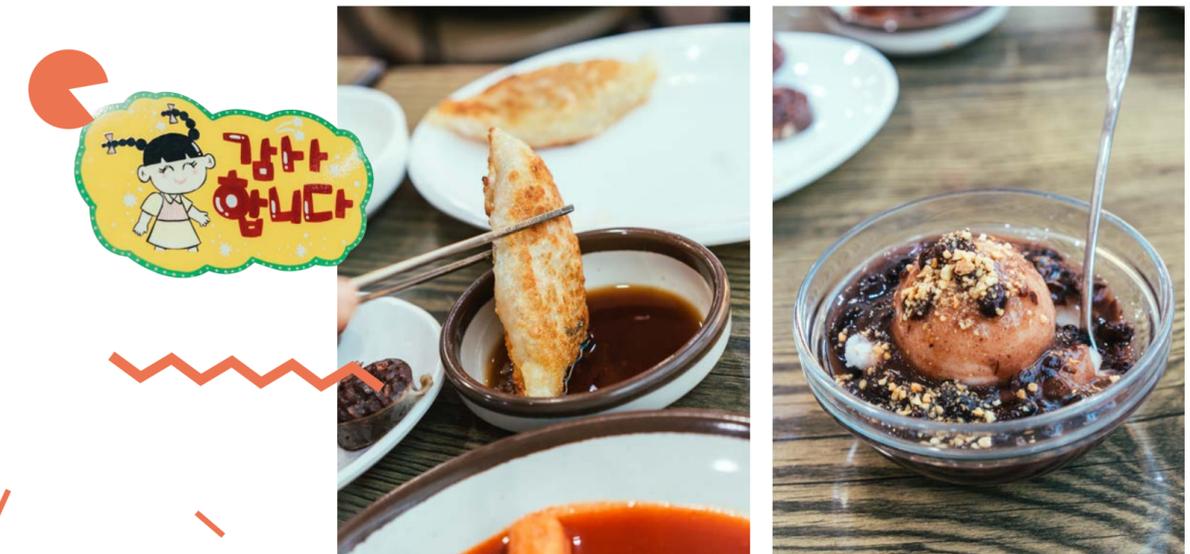
엄마는 수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기에 그런 건 일일이 기억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으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구(區)의 경계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삶이 신기했다. '혹시 떠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 1960년대의 대도시에서 태어나 서민층 가정에서 자란 여성의 삶을 짐작하며 어슬픈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교복을 입은 여중생들이 슬레이트 지붕 아래 분식집으로 들어선다. 간판은 없고, 유리문에 '맛나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을 뿐이다. 다들 고만고만한 서민들의 딸이었기에, 용돈을 받는 일도 흔치 않았다. 한 푼, 두 푼 모인 돈을 헤아려보고 딱 맞아떨어질 만큼 떡볶이와 만두를 주문한다. 엄마는 그 사이에 있었다. 행여나 빨간 국물이 하얀 블라우스에 묻을까 조심하며 떡볶이를 먹던 소녀들 틈에, 난생처음 입어본 교복이 어색했지만 분명한 설렘도 느끼면서, 어쩐지 자신이 부쩍 커버린 것 같다고도 생각하면서. 아마도 열네 살의 엄마는 바로 다음해에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어, 그 해가 자신이 교복을 입는 처음이자 마지막 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오십 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동네에 살게 되리란 것도, 아쉬울 만큼 제 남편만 빼놓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게 될 거란 것도. 다만 떡볶이와 순대는 따뜻했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즐거웠을 것이다.



"그때 이 주변은 썩 다 사람 살던 집이었지. 저기 KFC 있지? 거긴 목욕탕이었다. 덕천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동네가 된 건지 모르겠네. 엄지 니 낳았을 때 쫄인가?"
지금 엄마와 나 사이엔 떡볶이와 만두, 순대가 놓여있다. 떡볶이와 만두가 1인분에 천 원, 순대는 2천 원. 엄마는 요즘 이렇게 싸게 파는 곳이 없는데 대신 양이 적다며 소곤댄다. 당면으로만 속을 채운 군만두를 간장 대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다. 달짝지근한 양념이 낫설지 않다.
내가 맛나집에 처음 온 것도 열네 살 때였다. 엄마와는 다른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 이곳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낡은 건물이 아닌 새단장을 한 2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그때 나는 떡볶이보다 '팔크림'이란 디저트를 더 좋아했다. 하얀 아이스크림 위에 팔 한 스푼 얹어주는 게 전부일 뿐인데, 그때 그게 그렇게나 특별하게 느껴졌다.
"엄마 어릴 때 팔크림 있었다. 떡볶이 다 먹은 다음에 팔크림으로 입가심하면 달달하니 좋았지. 근데 그때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떡볶이를 양껏 먹고 나면 팔크림 먹을 돈이 없는 거라. 그게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다음번엔 팔크림 먹을 돈은 남겨놓고 떡볶이를 시키자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다음에 오면 또 이 떡볶이랑 만두가 너무 맛있고. 그럼 또 더 시키고. 그래서 또 팔크림은 못 먹고"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도 맛나집 떡볶이와 만두가 옛날만큼 맛있는지 물었다.

"떡볶이가 다 똑같은 떡볶이지 뭐." 감동적인 말 한마디 정돈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민망하게도 엄마의 대답은 심드렁하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
"엄마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사라지고,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사라진 흔적들이 아쉽진 않아?"
"어차피 남의 집에 얹혀사는 거였는데 뭐.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걸 뭐 우짜겠노." 사실 아쉬운 건 내 쪽이다. 나를 만나기 전 엄마의 삶은 어땠는지 좀 더 알고 싶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으니까. 이곳이라도 남아 있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학창시절, 아빠와 데이트하던 예쁜 추억까지 모두 이곳에 남아있으니까. 이제 다 커버린 딸에게 그런 자신의 기억을 도란도란 나눠줄 수 있는 맛나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엄마의 덩그러니 대답에 나도 그냥 떡볶이나 먹기로 한다.
"근데 엄마, 이걸 밀떡일까 쌀떡일까? 그래도 맛집 코너에 실리는 글인데 그 정도 정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떡볶이 마니아들에게 그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나 내가 밀떡과 쌀떡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엄마를 닮은 탓이다. 어쨌거나 떡볶이와 순대는 따뜻했고, 팔크림은 달달했다. 🍡



아버지의 바다

구술 강남석 글 강상현 순간과영원 대표
사진 하영문

부산항을 주무대로 50년 가까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이의 이야기는 어떨까.
남국의 바다처럼 낭만적이고도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길까,
아니면 사나운 파도도 잠재울 만큼 박진감 넘치는 무용담이나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 가득할까.
그러나 그가 들려주는 바다의 이야기는 평소 생각하던 것과 사뭇 달랐다.
더욱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기에 더 생경했고 더 놀라웠다.

그 시절 아버지의 바다는 매서웠다. 육지 끄트머리에서 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가고, 그 섬에서 다시 배를 타야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바다는 익숙했지만 쉽지는 않은 존재였다. 자상하기보다는 엄격한 아버지 같던 바다였다. 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한 바다 생활을 17세에 시작했다. 터울차가 나는 큰아버지를 따라 영갑곶에 뛰어들 바다였다. 어린 나이라 미숙하기도 했거니와 뱃멀미가 심해 도무지 바다에 적응하지 못했다. 배가 뒤집혀져 두어 번씩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러나 생업의 터전으로 삼은 이상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할 길도 없었다. 뱃놈이 멀미한다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 억지로 참아가며 남들 쉴 때 속을 다스리며 버티던 고된 시절은 20대 초반 잠시 배를 그만 타던 시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 이후 서른을 목전에 두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배를 탔고, 그 배는 먼 바다를 향하는 원양어선이었다.

젊고 피가 끓는 뜨거운 시절이었으나 아버지의 바다는 꿈꾸던 것과 달랐다. 그 옛날 정복자들처럼 태평양을 가르며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고픈 마도로스의 부푼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 년 중 육지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다에 떠 있는 날이 훨씬 더 긴 선상생활은 망망대해처럼 끝없이 보였고 고달팠다. 말단선원으로서 온갖 곳은일을 도맡아야 하고 한순간도 멈추는 법 없이 늘상 바다 위에서 출렁거리는 신세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바다는 그저 바다였다. 매순간 일렁이는 파도 역시 그냥 파도였다. 일할 때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역세게 일했다. 물에서처럼 바다에서의 직장생활에도 올라갈 계단이 있어 턱걸이하듯 한 단계씩 오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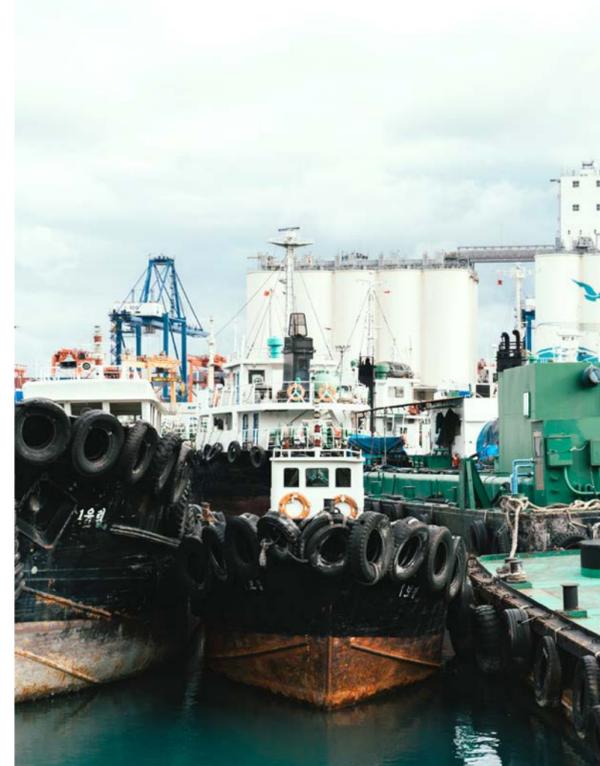


아버지가 탔던 배는 3만 톤 정도 되는 대형선이었다. 명태잡이 선단에 속한 가공선으로 300여 명의 선원이 함께 부대끼며 지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고 산 중 사람도 와서 타기도 했다.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는 선 내 스피커로 이름을 불러 축하해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다. 일과는 여섯 시간마다 바뀌는 물때에 맞춰 투망과 양망의 두 큰 리듬을 타며 반복적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사이 동료들과 농을 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심을 쟁이는 투박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바다는 한없이 넓었지만 선상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더없이 좁았다. 배는 물개나 연어, 대구 등을 못 잡도록 미국 감독선의 감시 아래 주로 알래스카 해역에서 조업을 했고, 가끔씩 정박을 위해 시애틀에 들르기도 했다. 그때 그곳에서 사 온 월슨 야구 글러브는 아들을 위한 첫 선물이었다.

해상에서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급변하기 일쑤였다. 바다의 표정은 좀처럼 읽히지 않았다. 배가 그리 컸음에도 아버지 말고도 뱃멀미로 고생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크고 작은 사고에 세 사람이나 죽어나가기도 했다. 관을 운반선에 실어 고속도로 보낸 기억은 아직까지 또렷하다. 배와 바다 사이의 경계는 늘 사선이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삶을 지탱해주되 보장해주지 않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도 끝도 섬도 하나 안 보이던 바다. 온종일 눈에 들어오는 거라곤 오로지 끼룩대는 갈매기뿐인 바다는 북방의 세찬 눈보라와 함께 아버지에게 여전히 혹독했다.

아버지의 꿈은 본래 가수였다. 어릴 적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어 막연하게나마 무대 위 가수를 동경했다. 옆집에 사는 같은 반 친구와 라디오를 들으며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받아 적고 따라 부르곤 했다. 소위 동네 노래자랑에도 자주 나가 끼를 뽐냈다. 하지만 상으로 냄버머 솔단지 등을 곧잘 받아오던 소년은 뱃일과 함께 자연스럽게 꿈을 접었고, 노래는 뱃일에 흥을 돋우어주며 이루지 못한 꿈을 달래주는 위안거리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꿈이 차지하던 자리를 일에 내주며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바다라는 무대 위에 설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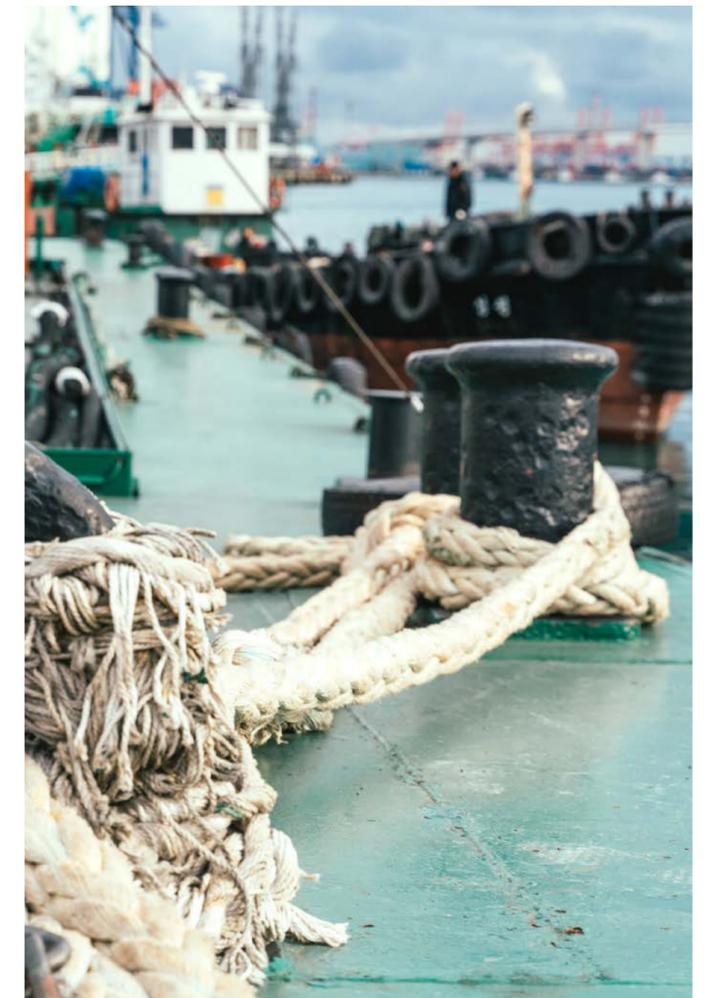
아버지는 물메기와 장어, 문어를 잡던 배를 시작으로 화물선과 원양어선, 유조선과 유창청소선 등을 거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인생의 순환주기처럼 아버지가 타던 배의 크기도 크레센도에서 데크레센도로 바뀌어갔다. 수심 또한 깊은 곳에서 덜 깊은 곳으로, 상대적으로 얕은 곳으로 옮겨왔다. 원양으로 뻗어나가던 아버지의 근무 반경도 근해 안으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기껏 해봐야 4부두 혹은 5부두에서 부산 신항까지 오가는 게 최장거리 운항 코스가 됐다. 물론 바다보다 육지에서 보내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한창 자식들 학교 보내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았던 시기에 아버지는 배 타는 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기엔 아버지의 어깨도 그리 크고 널찍하지 않다는 걸.



올해로 아버지가 배를 탄 지 47년이 됐다. 지금도 선장으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은 더 탈 것 같지만 50년간 배를 타는 셈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더군다나 바다에서의 반세기라니, 그 세월의 질곡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함께 모든 난관을 헤쳐 나온 뒤라 그런지, 이제 아버지는 바다가 고맙다. 먹고살 게 해줬고 먹어 살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버지의 삶의 전부가 돼줬으니까. 그리고 그런 바다를 아버지는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다. 첫 만남처럼 바다와의 마지막 이별도 예정 없이, 기약 없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다. 바다와 아버지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바다는 평온하다. 부산항 앞바다를 구석구석 어루만지듯 누비고 있다. 날이 좋을 때는 비단결 같은 바다를 기분 좋게 넘실대고, 미세먼지 없는 밤하늘엔 쏟아지는 별 세례를 받아가며 고요한 물결 위를 미끄러져 간다. 일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올 땐 등대의 환한 손짓과 부둣가의 먼빛이 반갑기 그지없다. 가족 곁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오늘도 무사고였음에 안도한다. 한때는 물에 띄운 바가지 같은 생활이 힘들고 지겨워 괴롭기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하다. 바다와 함께 웃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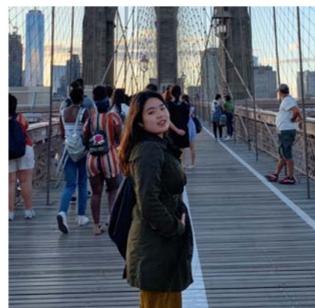
그렇게 아버지는 바다와 함께 잔잔하게 늙어가고 있다. 🌊



TO BUSAN

나의 바다가 그림다

글·사진 조경민 (뉴욕으로 간 부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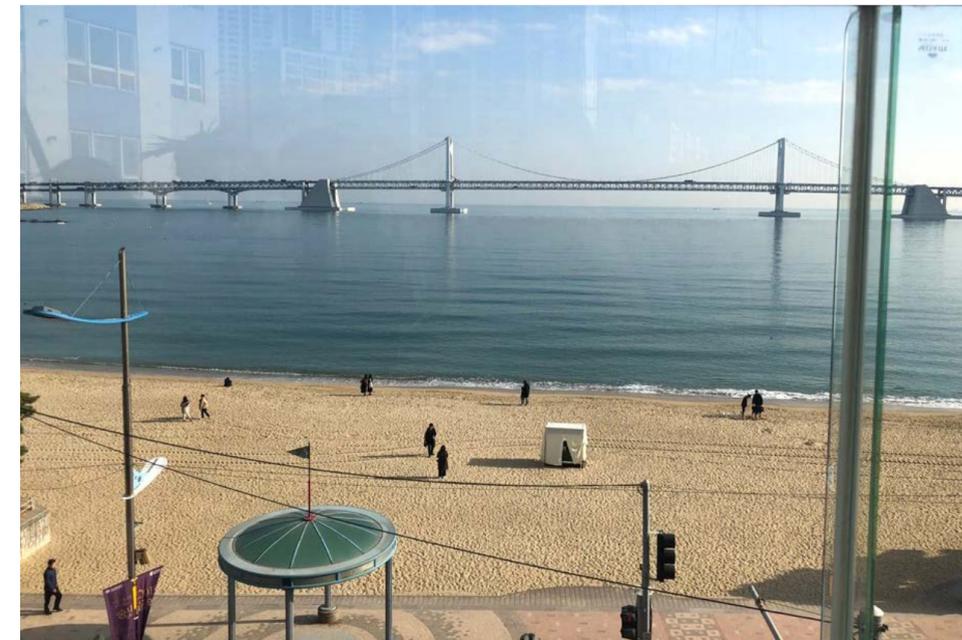
나는 지금 뉴욕에서 지내고 있다. 나도 흔히들 가지고 있는 타국에 대한 환상을 품고 왔지만, 이제는 맨해튼을 나가면 뉴욕커 마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딘가를 향해 바빠 걷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입을 한껏 벌린 채 감탄사를 내뱉던 내 모습에 대한 기억은 뿌연게 바래진 지 오래. 현란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자본주의에 물든 이 도시를 바라볼 때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감정이 교차한다. 공연과 예술로 가득한 이곳 뉴욕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신선한 공연을 보고 있으면, 깊이 빠져들어 벗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이 모든 무대와 예술성이 결국 거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퇴색되는 모습을 목도할 때면, 때때로 서글프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는 날엔 쓸쓸함이 뒤따른다. 각자의 꿈을 위해 달리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 앞에 놓인 거대하고 높은 벽들이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다.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만 같은 빛을 좇다 보면, 바닷가에 홀로 찾아가 가만히 파도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바다는 내 마음이 뭐라고 지껄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아도 우연히 지나치게 되는 것이 바다이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게 바다였다. 어릴 적부터 파도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파도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듯 날 때리기도 하고, 해당 없는 내 고민들을 제 품에 삼키는 것 같았다. 여름이면 생기 넘치는 푸르름으로, 겨울이면 소나무처럼 묵묵하게 나를 맞아주던 바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바다는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뉴욕의 나는 바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다. 늘 보이던 바다가 아니기 때문이었을까. 나의 바다, 부산의 바다가 그림다. 아간 자율학습을 도망쳐 나와 무작정 갈 수 있던 바다, 고독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부산의 바다가 보고 싶다. 그저 내 곁에 있음을 당연히 여겼고, 익숙함에 취해 소중함을 몰랐다. 앞으로 헤쳐가야 할 외로운 싸움, 그 끝에 그런 바다가 있기를 바란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바다가 되어주고 싶다. 누군가의 바다가 되어 듣고, 끌어안고, 지켜주고 싶다. 바다가 늘 나에게 그런 의미였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이고 싶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왕사오입니다. 저는 한국 온 지 4년 반 정도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 안산사범대학교 국제교류학원에서 중국어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외국인학생들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외국 유학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게 대견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학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고심한 끝에 유학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다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도시의 어떤 학교에 가야할지 엄청 고민했어요. 부산을 선택하게 된 건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느꼈어요. 바다가 있고, 날씨도 좋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비해 물가도 저렴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2015년 6월, 저는 마침내 중국을 떠나 부산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원에 들어가 9개월 정도 공부하며 한국어를 연수하고, 2016년 3월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석사 과정이 정말로, 너무나, 엄청 힘들었지만 2019년 1월에 무사히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나, 정말 칭찬해!) 그리고 2019년 9월에 동의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는 4년간은 정말 행복한 기억들로 빼곡해요. 한국어가 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부산을 만끽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부산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정말 정감 가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중국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한국 문화가 재밌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어려움도 많아요. 두 가지가 가장 힘든데, 첫째는 나이문화예요. 한국인들은 상하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첫 만남에서 나이부터 정리하고 호칭을 정해요.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직장 선후배, 학교 선후배 등 일상생활에서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사실 중국은 요즘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도 거의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발표 수업이에요. 학회나 학교 과제 발표가 너무 어렵거든요. 중국은 한국과 수업방식이나 대학생활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이 훨씬 자유롭다고 할까요? 한국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업을 정할 수 있고, 토론이나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대학생도 고등학생처럼 반이 정해져 있고, 수업도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요. 대부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식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의 대학생활이나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의 자유로운 생활문화나 토론수업은 좋지만, 발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이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상 제가 적응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부산이라는 도시와 사람들이 주는 행복의 크기가 훨씬 크답니다.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유학을 고민하는 친구와 후배들에게 부산을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도시야, 강추!" 저는 부산에 머무르는 동안 공부도, 사랑도,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나 사랑스러운 도시, 부산



글·사진 王思尧 왕사오 (중국에서 온 부산너)

FROM BUSAN



제19회 부산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

뿔을 가진 소년의 김휘근 감독을 만나다.

인터뷰 글 공지훈
사진 하영문

그의 작업실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독립영화, 감독, 예술가와 같은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 못한 선입견을 갖고 그를 만난 탓이다. 부산독립영화제와 같은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상업영화의 감독 오퍼를 받는 등 소위 '주목받는 감독'이 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짧은 대담 속에도 늘 진심이 담겨있었고, 수줍은 미소 뒤로 진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보여준 영화에 대한 그의 진심과 열정은 적잖은 감동마저 느끼게 했다.

먼저 늦었지만 영화 '뿔을 가진 소년'의 개봉을 축하드려요. 독자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만드는 김휘근입니다. 올해 '뿔을 가진 소년' 작품으로 첫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음... 20대 초반에는 한화시스템에 입사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사 후에 지인의 권유로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했다가 생각과 다른 일과 환경 때문에 제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부산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백수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셈인데, 백수가 되니까 옛 꿈이 생각났어요.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나요?) 그런 셈이죠. 어릴 때부터 영화 찍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예술고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졌죠. (웃음) 제가 열세 살 때, 원래 영화의전당에 있던 자리가 엄청 큰 공터였거든요. 거기서 첫 단편을 하나 찍었는데 그때부터 영화는 제게 놀이이자 꿈이 됐죠. 재밌었어요. 한 번 찍고 나니까 또 찍고 싶어져서 계속 찍고 그러다 보면 잘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부산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뿔을 가진 소년'은 독특한 소재와 감독의 참신한 시선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습니다.

극본을 쓰거나 연출을 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나요?

살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 모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영화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스스로 계속 갖게 되는 질문들을 영화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살을 통해 생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주로 얻는다?) 네. 음... 그리고 8년 동안 같이 작업하고 있는 배우 팀이 있는데, 배우 분들을 보면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 배우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새로 나올까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캐릭터들이 제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느낌이랄까... 가끔 배우 분들을 볼 때면 무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당이라는 게 다른 이를 자신의 내면에 불러와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배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영상을 만들며 놀았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업 영화감독이 꿈이었는지, 꿈을 이룬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즐겁고, 그저 천천히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속도 타고. (웃음) 재미보다는 책임져야 할 게 훨씬 많아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면 반에서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게 전부라 늘 아쉬웠는데, 이제는 영화를 봐주는 관객 분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관객이 점점 많아지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장소의 급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영화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죠.

예전에는 솔직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하려면 다른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영화를 직업으로 삼고,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쯤이야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스텝다섯쯤 되면 나는 감독이 될 거다?) 네, 뭔가 외국은 다 이쯤 입봉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쯤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영화를 직업으로 삼을 때가 될 것 같다고 계획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입봉 : 감독 데뷔, 한국은 통상 전국 열두 개관 이상에서 일주일 이상 개봉을 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편집자 주

독립영화 연출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독립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상업영화가 할 수 없는 실험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감독이 하고 싶은 자신만의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업영화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독립영화는 사실상 개인의 작품 활동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독립영화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업영화와는 시스템이 다르니까... 소위 사람이 '몸뿔'으로 견딘다고 할까요. (시스템이라고 통칭하셨는데, 재원조달 측면 아니면 배급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일 어려웠던 건... 사실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는데, 상품화시켜서 배급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배급 과정에서 좌절감도 많이 느꼈고요. 정말 갖은 고생 다해서 만들었는데, 필름으로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배급이 안 된다는 건 내 영화가 관객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했던 배우들이 스태프들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나 영상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취미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인을 꿈꾸는 이들을 비롯해 취미로 영화연출을 즐기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요?

제가 아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한참 겸손한 고민 끝에) 굳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테이프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하나에 9900원짜리 6mm 필름, 그러니까 60분짜리 영화 하나 찍으려면 9900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번에 담기는게 아니니까 아끼고 아껴서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사실 휴대폰 장비만으로도 화질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다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한 장의 이미지라도 한 사람의 무의식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 영화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걸 먼저 배웠어요. 요즘은 '하루 만에 촬영편집 마스터' 같은 강좌들을 볼 때면 뭐랄까... 씬에 대해 고민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영화연출, 촬영을 할 때 장면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요즘 동호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거만해 보일 것 같아요. (웃음)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영화를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덧붙여 조언을 굳이 드리자면, 심사위원이나 평가자가 아닌 자신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찍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차기작을 비롯한 향후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뿔을 가진 소년이 스페인의 작은 영화제에 초청된 적이 있었어요. 가긴 갔는데 관객은 많이 없고, 스페인 할아버지들이랑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실망보다 '영화를 이 먼 곳에서 할아버지들과 볼 수 있구나.' 싶더라구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고,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네. 리액션도 엄청하시고, 함께 보는 내내 정말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 영화를 온전히 내 판단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영화를 지금까지 스스로 평가절하 해왔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디다. 그리고 지금은 망각자(가제)라는 작품을 구상중이에요. 롱보드를 타고 달리면 미래가 보이는 한 소녀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 그 할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우리의 아픈 시대상을 엿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석씨의 이중생활 N 살아가기 잡러로 (Feat. 공유경제)

인터뷰 글 공지훈
사진 하영문

임현석 공유주방 양화랑 대표, 공간 브랜딩 기획자



양화랑과 덕천키친이라는 두 가지 네이밍을 의도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것인지? 이름의 의미와 운영 중인 공유주방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처음에 아내와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양화랑은 C의 개념이다. 양화랑에서 '미세취향 서식지'라는 개념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그 중 하나가 덕천키친인 것이다. 로컬성이나 취향을 담은 공간 개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열게 됐다. (덕천키친은 양화랑의 브랜드 중 하나, B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 양화랑이라는 이름은 사실 아내의 이름 '양화'에서 따온 것이다. 출렁일 양에 빛날 화 사랑채 랑. 또 바다를 보면 파도에 햇빛이 비취질 때 반사되는 빛깔이 함께 일렁이지 않나. 그걸 양화라고 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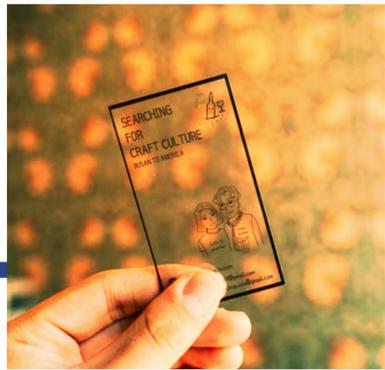
먼저 간략한 자신의 소개를 부탁한다.

젬스톤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주 업무다. 또 공간에 맞는 브랜드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과 SNS 마케팅을 병행할 때도 있다.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처럼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본업을 '공간/브랜딩 기획자'로 보면 될까?) 그렇다. 그리고 아내와 양화랑이라는 공유주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공유주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사실 공유경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언젠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다 공유오피스 0.9M에서 일하던 몇 해 전, 우연히 듣게 된 세미나에서 영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사례가 후암주방이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재래시장 근처에 위치한 후암주방은 사업 자체도 성공적이었거니와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사업모델이었다. (구포시장을 옆에 끼고 있는 점이나 인구구성 및 낙후된 이미지 등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공유주방, 로컬 기반 콘텐츠... 양화랑은 거시적으로 이 지역의 도시재생을 생각하는 것인가?) 도시재생을 유도하거나 참여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는 것뿐이다. 다만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욕심은 분명히 있다. 이곳 구포, 덕천 지역은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좁음의 거리'와 '구포시장'이 지근거리에도 있으면서도 단절되어 있다. 후암주방은 낙후된 공간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활력을 불어넣고, 1인 가구 증가로 이용자가 늘어나 식자재를 함께 쓰기도 하는 순환적인 스토리가 있더라. 재미있겠다 싶었다. 아내가 베이킹, 전통주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공유주방 운영과 병행하면 이용자가 생각보다 적더라도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도 있다.

복수(複數)를 상징하는 'N'과 직업이라는 뜻의 'job', 그리고 사람을 칭하는 '~리(er)가 합쳐진 'N잡러'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그동안 '장인'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던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마주하며 역량 있는 'N잡러'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을 두루 습득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N잡러'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에 회사 콘셉트를 '일상의 반짝거림'으로 정해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었기 때문에, 적절한 네이밍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덕천키친이라는 네이밍은 위치가 덕천동이기도 하고 로컬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었다. 또 이 지역은 사실 서면이나 해운대처럼 속도가 빠른 지역은 아니어서 더욱 직관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 덕천주방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덕천이라는 단어가 키친과 더 어울리더라.(웃음) (사실 덕천주방이라고 했으면 주방용품점인 줄 알았을 거다.) 맞다. 생각지도 못하게 어르신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치킨 집이나고 물으시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뭐 파는 곳이라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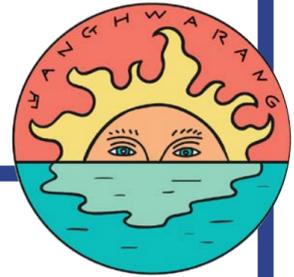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클라우드 키친이 4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덕천키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롤 모델이라고 봐도 될까?

일단은 공유주방은 저희가 하는 첫 시도일 뿐, 공유주방 사업이나 특정기업체가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덕천키친의 경우 개인의 취향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자는 것일 뿐이고, 양화랑이 영위할 다른 사업에서는 그게 공간이 될 수도 온라인 상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형태의 회사를 굳이 꼽으려면 어반플레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다. 공유 혹은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봐도 될까?) 어떤 특별한 부동산 매물 있다고 하면 그 매물의 특징에 맞게끔 콘텐츠를 녹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구포시장이 있다고 하면 구포시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어울리는 공간을 꾸민다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로컬에 집중한?) 맞다. 굳이 표현하자면 로컬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약 7개 도시를 돌았다. 여행을 돌아보니, 여행 중 좋은 브랜드라고 느껴졌던 것들은 하나같이 로컬성을 잘 살린 브랜드들이었다. (거기서 지속 가능성을 본건가?) 그렇다. 지속 가능하려면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로컬성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때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유경제' 개념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금 많은 기업이 표방하는 '공유경제'가 '대여서비스와 워가 다르냐는 사람들도 많고 공유라는 말 자체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닌가 한다. 지금 말하는 공유경제에서의 공유가 순수하게 선택 의지의 공유는 아니라고 본다. '한 사람이 쓰던 거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배분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보자' 하는 건데, 그걸 '공유'라고 명명하다 보니까 단어의 원래 의미와 다소 혼선을 빚은 게 아닌가 싶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셰어링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공유의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혼선을 빚어냈다?)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단어의 뉘앙스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두 가지 일 모두 쉽지 않은 일이라 고충이 많을 것 같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 크게 스트레스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일중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워라벨을 굳이 구분 지으니 힘든 것 같다. (툭툭, 쾰대 같은 소리 듣기 싫어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웃음),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만 인식하면 결국 내 삶이 결국 반쪽짜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저도 그렇다. 요즘 일과 삶이 일치한다는 느낌이고, 여기에 굉장히 만족한다. 한 쪽에서 했던 일이 다른 쪽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데이터로 쌓이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스트레스보다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일을 통해 이끌어 내고 싶은 목표와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잘해 이런 것보다는 저런 색깔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싶다. 절대적으로 잘한다는 느낌보다 A라는 취향과 A라는 색깔을 가진 팀이 A처럼 플레이를 하는구나 하는 우리만의 노력과 스토리를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나는 직업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러 개의 직업을 요일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공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이런 상상을 한다.

예를 들어 내 직원이 특정 분야에서 지금껏 커리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취미로만 해왔음에도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지녔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권하는 거다. 재능을 가진 많은 이들이 기회의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나도 여기 소개하는 두 가지 일 외의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을 경험했고, 크고 작은 성취를 이뤄냈다. (다양한 직업 또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본인은 그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 그렇다. 분명 그런 마음이 있다. 본인 외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다른 일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협업과 융합을 일으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순간이 내게는 너무 즐겁다. 이는 'N잡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N잡러'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더 많은 'N잡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다. 🌱

평범한 시민들의 비범한 무대를 만나다

시민연극공연단 '감동진'

인터뷰·글·사진 하영문



[인터뷰 참여 멤버]

극단 대표 황희영 1기 단원 고재영 2기 단원 엄미숙, 김영재, 심성미, 이성혜

독자분들께 시민극단 감동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동진 시민극단'은 연극에 목마른 시민, 삶의 힐링이 필요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극단 '해풍'의 이상우 연출가가 기획 모집한 연극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감동진 1기 시민배우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는 올해 모집한 2기 배우분들과 매주 목요일 저녁 '북구문화빙상센터 연습실'에서 차기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요작품

- 2018년 11월 11일 창단공연 "감동진 선사인"
- 2018년 1월 12일 시인 오정환 선생님의 추모 콘서트 "물의 경전"
- 2019년 3월 22~23일 구포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공연 "감동진 선사인"
- 2019년 5월 17일 구포나루 개막극 "감동진 선사인"(초청 공연)
- 2019년 10월 4/6일 '구포 1919'
- 2019년 11월 28일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



극단이름인 감동진(옛 구포 일대의 지명)에서 강한 지역성이 느껴집니다. 이전 작품(감동진 선사인)도 일제강점기 구포 일대를 배경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들에게 구포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황희영 구포는 말 그대로 작은 포구였습니다. 구포장터(어물전) 감동창과 감동진나루를 배경으로 장이 섰던 구포 감동진은 강변의 어물전에서부터 안쪽 한마당 장터까지 장날(3일, 8일)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낙동강 하구 지역 최대의 장터였습니다. 17기 수업 중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구포박물관과 구포시장, 구포역 등을 견학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919년에 일어난 일들을 스토리텔링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첫 작품이고 이 지역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감동진 선사인이라는 작품과 구포는 저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고재영 먼저 감동진 선사인이라는 작품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감동진 선사인은 유학을 갔던 훈이가 독립운동가로 돌아와 감동진의 상인, 농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훈이의 사랑과 작중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만세운동의 흐름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시민극단이니만큼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들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연극을 시작하고 생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엄미숙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결혼 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자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버렸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을 위한 나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하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1회지만 공연장에 서는 경험도 하게 됐고, 이상우 연출가님의 섬세한 가르침과 감동진 시민극단 멤버들과의 교류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감동진 파이팅~♥

김영재 20대에 연극 공연을 즐겨 보다가 '나도 연극배우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느끼곤 했는데, 배우의 길이 쉽지 않다 보니 선뜻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바쁜 일상을 지내던 와중에 문득 예전에 꿈꾸던 연극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민극단 감동진 수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연기를 배우고 무대에 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연극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공연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심성미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시민연극공연단 '감동진' 성연란 엄윤청 하진옥 송국희 이수연 엄미숙 김영재 이성혜 심성미 황희영
단원 명단 박은희 김채안 황용구 정영숙 방재희 고재영 조영대

본업을 하면서 극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이성혜 주 1회의 정기 수업에 참여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타 공연지원이나 관람 등 부가적 활동을 모두 하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죠. 때때로 연기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감동진 활동을 1순위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최근 공연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공연계획을 알려주세요.

황희영 2월 초에 감동진 가족 초청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닥터'라는 작품인데, 다양한 에피소드를 오프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작품입니다. 현재 배우들이 작품 속 에피소드를 직접 원하는 대로 골라 맹연습 중입니다. 해배에 친구, 가족들과 함께 연극 많이 관람하시고, 2월초에 있는 감동진 시민극단의 '굿닥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나와 너로 세상을 만나는, '고치'는 집

글·사진 정서원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고치

남산정역 5번 출구 옆 오르막길 한가운데 양중맞은
고양이 모양의 창문이 있는 집.
'대구, 단비, 설이' 3마리의 고양이가 뛰어놀고,
대뜸 '하고 싶은 게 뭐?'라며 인사 건네는 집사들이 반기는 곳.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고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고치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에요?

고치는 그동안 봉사, 잡지 및 문집 발간, 마을잔치, 좌담회, 사진전, 베품시장, 개인프로젝트 축제, 마을축제, 청년문화소통축제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올해는 월담회(소셜다이닝)와 만덕천살리기운동, 일상철학운동 '나비학당', 구포역 '청년센터감동 예정공간' 전시&문화기획, 청년단체디렉토리맵 제작, 청년반상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고치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이지.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설명해요.
'고치는 집이에요, 배고프면 함께 밥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서로에게 자신의 품을 나누주며 만들어진 집이에요.'



어쩌면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고치의 '집 외관이 아닌 집 안'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활동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청소년·청년공동체, 문화교육단체,
마을공동체'의 구획된 이름으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은 아녜데..'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라 명명하고, 소개해요.
'나와 너, 사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고쳐내고,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실천하는 곳'이라는
의미와 바람을 담고 있어요.
고치의 모든 활동은 "내 앞의 한 사람이 가진 결핍과 욕구에 선의로서
반응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해요. 멤버는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어요. 지금은 청년이 주를 이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이 대다수였어요. 바로 옆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오고 있어요. 멤버들은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살고 있어요. 평소에 각자의 생활을 하며 일상의
소식들을 나누다가, 활동을 할 때는 모여 하나가 되어 움직여요.
다양한 세대, 지역, 각기 다른 결핍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활동도 무척이나 다양해졌어요. 전체가 마치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이걸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접 와서 경험하는 것만큼 충분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요.

흥이 있어 사랑이 넘치는 이곳

5년 전, 본래 있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공간을 만났어요. 인쇄소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라, 곰팡이와 먼지로 가득한
흙투성이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 나가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었죠. 당시 고치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하교만 하면 교복을 입은 채로 달려왔어요. 함께 장판을 뜯고 벽을 긁어냈어요. 또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
페인트칠을 하면서, 서서히 공간을 가꿔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곳을 공연장으로, 공유주방으로, 좌담회장으로,
비밀의 공간으로, 작업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멀쩡한 공간이었다면 공간의 형태에 맞춰가느라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창의적인 상상들로 가득 찼죠. 공간이 가진 흥을 메우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는 법을 배웠고,
공간은 저희가 가진 다양한 욕망들을 품어냈어요. 그래서 고치의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도 될 수 있어요. 요즘도 작업공간에서
공유주방으로, 공유주방에서 좌담회장으로, 또 공연장으로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 같이 밥 먹어요!

매주 월요일은 고치가 공유주방으로 변신하는 날~ 월요일엔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일상을 나누고, 또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월담회가 열려요. 월담회는 지난 2년간
누구든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나누는 고치만의 문화가 집약된 행사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년, 청년, 대학생, 직장인, 사업자, 예술가, 마을어른들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해왔네요. 세대, 성별, 나이, 직종 모두 다르지만, '나만의 고민'이 사실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고민'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청년, 세대, 지역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는 분들과 함께
'청년반상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생활의 뿌리인
'밥상'을 함께하다 보면, 즐거와 꽃이 될 '일상'도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저녁 고치로 놀러오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



